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전승의 명절인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주체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7.27을 세대를 이어 경축하는 인민의 환희를 배가 해주며 새로 개발생산되어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무인정찰기와 다목적 공격형무인기가 열병광장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비행하였다.

이어 조국에 바쳐진 전승세대의 값비싼 희생과 고귀한 넋이 깃들어있고 세계를 굽어보는 위대한 우리 국가, 위대한

승리자의 존엄과 기상이 빛발치는 용진장중한 《승리》상을 중심으로 청년학생들이 무도회를 펼치면서 경축분위기를 고조시키었다.

열병식주악을 맡은 공훈국가합창단이 입장하였다.

경축열병식의 서막을 펼치며 종합군악대의 군악레시가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기백넘친 혁명군가속에 일당백강군의 필승의 기개와 전투적랑만을 특색있고 재치있는 무기로 교묘 보여주었다.

이윽하여 백전백승하는 영웅군대, 무적강군의 위엄 빛나는 공화국정예무력의 열

병부대들이 대열병관현악에 맞추어 위풍당당히 광장으로 입장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원수님께서 광장에 도착하시자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엄숙한 영접의식이 진행되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명예위병대와 조선인민군 주요부대 군기들을 사열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원수님을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

부대,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영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대원들과 경축행사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비서와 국방성 지휘관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 정치위원들, 련합부대장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과 정부, 군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온 로병간부들이 주석단특별석에 자리잡았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국방상인 세르게이 쇼이구대장과 리홍충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와 중국의 외교대표들이 주석단에 초대되었다.

(2면으로 계속)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1면에서 계속)

전쟁로병들, 전시공로자들, 원군미풍 열성자들, 공로자, 로력혁신자, 모범군인들, 련사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행사참가자들이 초대석에 자리잡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계양식이 엄숙히 진행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국기를 경건히 우리르며 숭고한 경의를 드리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경축하여 21발의 례포가 발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강순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이 연설하였다.

이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었다.

억만금으로도 살수 없는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빛내여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신 조국해방전쟁승리 지휘관상징중대의 입장으로 장엄한 열병식이 시작되었다.

조국해방전쟁의 매 전략적단계마다 진격의 돌파구를 피로써 열여제긴 불멸의 공훈을 굳기마다에 새겨안고 혁명무력의 첫 근위부대, 전설적인 근위사단, 근위련대 상징중대들이 지축을 울리며 련이어 광장에 들어섰다.

영웅조선의 본태를 보여주며 미제의 죄악에 찬 《상승》의 전통을 치욕과 패배의 전통으로 뒤바꾸어놓고 우리 조국의 영원한 승리의 전통을 마련해놓은 전화의 근위부대들의 위훈을 전하는 상징중대들에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포화속을 뚫고 군수물자수송에서 무비의 위훈을 세운 조국해방전쟁시기 철도병상징중대, 포성없는 진구들에서 적들의 침략전쟁기도를 제때에 알아내고 수많은 간첩과괴담해분자들을 적발속청하며 전쟁승리에 특출한 기여를 한 내무성상징중대에 이어 항일의 고귀한 전통을 계승하여 남녘로소가 침략자들과의 결전에 나섰던 불굴의 항전사를 전하는 소년남녀빨찌산상징중대가 붉은기와 소년단기를 나뭇기며 광장을 활보해갔다.

전승세대의 영웅정신과 투지, 기백이 차넘치는 열병광장으로 전쟁의 철화를 헤쳐온 기계화중대들이 기세차게 전진해갔다.

항일의 혈전길에서 개척되고 항미의 불바다속에서 더욱 굳건해진 수령보위의 고귀한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며 수령이 가리키는 승리의 한길로만 달음쳐나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전진기상을 안고 명예기병중대가 말발굽소리를 높이 울리었다.

당중앙결사옹위에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이 있다는 백승의 철학, 불변의 진리를 웅변하며 당중앙위원회 호위처중대, 국무위원회 경위국중대, 호위국중대, 호위사령부중대가 위엄있게 나아갔다.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승리를 떨쳐온 무적의 사단, 련대들의 군기를 자랑높이 나뭇기며 전진군단중대들이 멸적의 장검을 비껴든 군단장들의 인솔하에 행진해갔다.

조국의 령해와 평공을 지켜 령사의 갈피갈피에 오만하게 날뛰던 미제침략자들

에게 참패를 안긴 승전화들을 가득채운 해군, 공군중대와 공화국무력의 불가항력의 상징인 전략군중대, 특수작전군중대들에게도 미제의 쓰디쓴 패배의 전통을 속명으로 만들어버릴 도도한 기상이 서리발쳤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절대불변의 계급적각오와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무자비한 징벌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장구한 반미대결전에서 련전승만을 안아온 값높은 위훈이 새겨진 영광의 군기를 추켜들고 기세충천하여 행진해가는 열병중대들에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열병광장으로 수도방어임무를 맡은 군단중대들, 조국의 해안과 국경연선, 후방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선 군단중대들이 굽이쳐갔다.

땅크장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중대들과 정찰총중대에 이어 반제반미대결전의 맹장들을 키워내는 주체군사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중대, 나라의 최고급군사지휘관양성의 중심기지인 김정일군정대학중대, 인민군대정치일군양성의 원종장인 김일성정치대학중대가 위풍당당히 진군해갔다.

주체혁명위업의 억년청정함을 담보하는 핵심골간육성의 원종장에서 혁명의 원과즐기,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나가는 미더운 계승자들의 대오인 혁명학원중대들과 조국방 방방곡곡에 철벽의 진을 치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가는 로농적위군중대가 용기백배하여 발구름을 높이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을 만드는

일련단심에 전승세대의 넋을 만장약하고 위대한 전승사와 그 승리를 지켜온 70년 령사를 700년, 7,000년으로 길이 빛내여갈 신념의 맹세로 격동치는 열병중대들에 손을 높이 드시어 격려해주시었다.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따라 우리 국가의 억년강대함과 영원한 백전백승을 위하여 용진, 용진 또 용진해나갈 전체 열병대원들의 드높은 맹세의 함성이 경축광장을 진감하였다.

전승철의 환희와 경축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광장상공을 뒤물리며 인민공군의 장쾌한 열병비행이 시작되었다.

격렬함과 영웅성에 있어서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조국의 위대한 승전사를 7월의 하늘가에 아로새기며 오각별과 수자 《70》을 형성한 비행중대가 광장상공을 통과하였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철예한 대결전에서 침략자의 후예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안길 우리 혁명무력의 강대성과 현대성, 대적의지를 보여주며 기계화중대들이 열병진군을 개시하였다.

주력땅크중대와 인민군대의 제1병종인 포병중대들의 철의 흐름이 열병광장에 노도쳤다.

적들과 정면승부를 내야 할 고대하던 시각이 도래한다면 전대미문의 소량전, 최후의 섬멸전으로 대담할 우리 혁명무력의 초강경립장을 세계앞에 선언하며 발사전야의 격동상태에 있는 전술미사일중대와 장거리순항미사일중대들이 광장으로 진입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

무기중대들이 기세차게 나아갔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적대세력들의 각이한 반공화국핵전쟁위협과 도발적인 침략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공화국 전략무력의 가장 강력한 핵심주력수단인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을 이끌고 미사일총공 제2붉은기중대가 광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의 격정과 환희는 고조를 이루었다.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목제를 끝장내고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수 있는 강대한 국가와 인민의 절대적인 힘의 실체, 정의와 평화수호의 보검인 우리 전략무력의 위상을 체현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중대가 영웅발사대차를 선두로 광장주로를 메우며 진군해갔다.

열병식이 끝나자 또다시 격정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경축의 축목가 황홀한 불보라되어 전승철의 밤하늘에 끝없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손을 높이 드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은 위대한 영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사회주의전면적부흥발전을 가속화하며 반제반미성전에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전승신화를 창조해나갈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한 대정치군사축전으로 조국청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기념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기념보고대회가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원수님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에 따듯이 답례하시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영원한 전승의 명절을 맞이하는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보고대회에는 위대한 영웅시대의 주인공들인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 원군미공열성자들, 공로자, 로력혁신자, 련사들의 자손들, 청년건설자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혁명학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연방 군사대표단,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기념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 천체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우고 우리 인민에게 세세년년 충효를 주억할 승리의 령사와 전통을 물려주었으며 진정한 모습으로 청사에 특기할 전승 70돐 기념행사에 참석한 존경하는 전쟁로병동지들과 전시공로자동지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였다.

또한 공화국의 영웅적인 첫 세대가 피로써 지켜낸 국호와 국기를 장장 70년간 영예롭게 사수하고 그 권위와 힘을 누리에 떨쳐가는 더없는 궁지와 자부속에 전승의 명절을 맞이한 전국의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 주고 우리 당과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변함없이 지지성원해주고있는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전체 중국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보내였으며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들과 참전자유가족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보내였다.

연설자는 조국해방전쟁은 강대한 외래



제국주의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우리의 주권과 령토와 인민을 지켜내기 위한 조국수호전인 동시에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미제의 오만한 기도로부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진영을 보위하고 인류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진보와 반동간의 전면전쟁으로서 그 고강성과 격렬성에 있어서 미증유의 기록을 남기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전승과 더불어 우리 공화국은 가장 포악하고 강대한 미제와 결렬히 맞서 싸워 자주와 정의를 지키는 동방의 보루로 세계의 시각에 뚜렷이 새겨졌으며 존엄 높은 우리의 국호와 국기는 영웅성의 상징으로, 반제투쟁의 승리의 기치로 누리에 빛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력사적의의와 심원한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빛나는 전승의 력사적의의는 가장 존엄한 환경속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는 영웅적투쟁사를 개척하고 그것을 조선혁명의 전통으로, 우리 국가발전의 성격으로 굳혀놓는데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참혹한 비극으로 될수도 있었던 전쟁의 년대를 승리로 바꾼 그 위대한 력사가 있어 그처럼 혹독한 년대와 년대들에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며 부국강병의 대

업을 완수한 새 조선의 력사가 탄생하였고 온갖 불의와 폭제를 짓부시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지켜낸 전설의 70년이 청사에 새겨졌다고 지적하였다.

전승의 그날로부터 흘러온 70년의 긴 세월속에서 세인을 경탄시킨 전설적인 년대들과 전환의 분수령들은 레의없이 대내외정세가 복잡하고 국난이 닥쳐온 시기에 마련되었으며 시대를 격동시킨 무수한 영웅적위훈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전승세대의 혁명정신과 하나로 잇닿아있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조국해방전쟁은 승리의 영광과 함께 다시는 참혹한 전쟁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강렬한 체험과 기어이 딛고 올라야 할 강국의 목표를 주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미제의 침략야망을 짓부실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면 이 땅에서 전쟁의 결속이 정전이라는 말로 끝나지 않았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쓰라린 체험과 피맺힌 원한이 있기에, 더이상 침략의 과녁이 될수 없기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력사의 온갖 도전과 모진 고난속에서도 자위국방을 정책기조로 세우고 군력강화의 길을 줄기차게 걸어왔으며 력사는 리념적으로, 제도적으로 대립되는 두 국간의 치열한 대결장으로 되

고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장구한 기간 평화가 유지되고 지켜지고있는가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행성에 미국이라는 침략적실체, 패권적실체가 존재하기에 우리 국가와 인민이 싸나가는 힘의 력사는 멈출수도 늦출수도 없다고 하면서 만일 미제가 대세의 흐름과 변화된 현실을 똑똑히 보지 않고 분별없이 날뛰며 조선에서 두번다시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 과도한 야망과 함께 력사의 무덤에 매장되고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70년전 우리 인민이 세계평화에 호인민들로부터 사심없는 정신적 및 물질적방조를 받으며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정의가 부정을 이기고 진보가 반동을 이기는 위대한 력사를 창조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당과 정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조선전선에 파견하여 희생적으로 전쟁승리에 기여하였으며 자기 조국의 안전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동방초소를 지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조국의 위대한 명절을 축하하여 평양에 온 친선적립방인 로씨야연방의 국방상 세르게이 쇼이구대장동지를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하면서 자기의

주권적권리와 안전리익을 위협하고 해치는 우리들을 타승하고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싸움에 떨쳐나선 로씨야정부와 군대와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전투적정의를 보내였다.

그는 패권과 팽창을 추구하여 행성의 곳곳에서 류혈적인 대결과 정변, 전쟁을 조작하고 부추기며 다른 나라들을 구속하며 해치려는 지배주의세력과 강권행위가 존재하는한 그 어느 나라와 지역도 안전할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와 인민은 미국의 패권에 반기를 드는 나라들의 편에 확고히 서서 그들과 한전호에서 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이 땅의 영원한 평화와 튼튼발전을 위하여, 유명무명의 수많은 용사들이 바친 숭고한 희생과 아름다운 님의 영생과 그들의 념원이 찬연히 살아 빛날지는 위대한 강국을 위하여, 후손만대 길이 빛날 사랑하는 우리 조국, 공화국의 무궁변영을 위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치단결하여 굴함없이 역세게 싸워나갈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 70돐을 경축하기 위한 기념보고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온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로씨야연방 대통령의 축하연설을 세르게이 쇼이구 로씨야연방 국방상이 대독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명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와 대회참가자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온 푸틴대통령의 연설에 열렬한 환호로써 감사의 정을 표시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영웅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빛내이는데 불멸의 공헌을 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전달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기념보고대회는 투철한 조국수호정신, 혁명보위정신을 승리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선렬들이 목숨바쳐 지켜낸 우리 조국을 무궁변영하는 사회주의강대국으로 일떠세울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전승 70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위대한 전승 70돐에 즈음하여 7월 25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강순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을 비롯한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군종사령관들, 대련함부대장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피어린 승리, 값비싼 희생으로 조국과 인민의 자주권과 안보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고귀한 사상정신적유산과 승리전통을 우리 공화국의 억척불변한 강대성의 초석으로 고인 위대한 년대의 련사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지구의 동방일각에서 반제투쟁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키며 안아온 7.27의 기적은 조국의 명예와 자주권을 결사수호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특출하고도 열렬한 애국위업의 승리인 동시에 침략의 원흉 미제에게 영원히 씻을수 없는 수치와 패배를 안기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낸 인류사적인 대승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승세대가 피와

목숨을 바쳐 이룩한 값비싼 전승과 장강 70성상 세기와 세대를 이어 미래와의 굴함없는 대결전에서 떨쳐온 백승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수 없는 인민의 나라, 정의로운 국가의 실체를 온 세상에 명확히 각인시킨 조국보위, 평화수호의 참다운 본보기이라고 하시면서 이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우에 우뚝 세운 긍지높은 존위로 된다고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력사와 전통이 위대하고 계승이 굳건한 국가가 필승불패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년대에 발휘된 영웅정신과 투쟁본매를 우리 혁명특유의 불가항력으로 빛나게 계승해나갈 때 세계에서 가장 존엄있고 자주적인 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고 련사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비서와 강순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동행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화환진정공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중국인민지원군렬사탑에 진정되였다.

화환의 맹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은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전쟁에 참전하여 소중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안치되어있는 모안영동지의 묘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이고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들의 묘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반제반미투쟁을 영웅적인 희생으로 지지성원하며 전쟁승리에

중대한 공헌을 한 중국인민의 아들딸들의 송고한 넋과 정신은 사회주의 리념과 더불어 영원불멸할 조종천신의 초석으로, 귀감으로 청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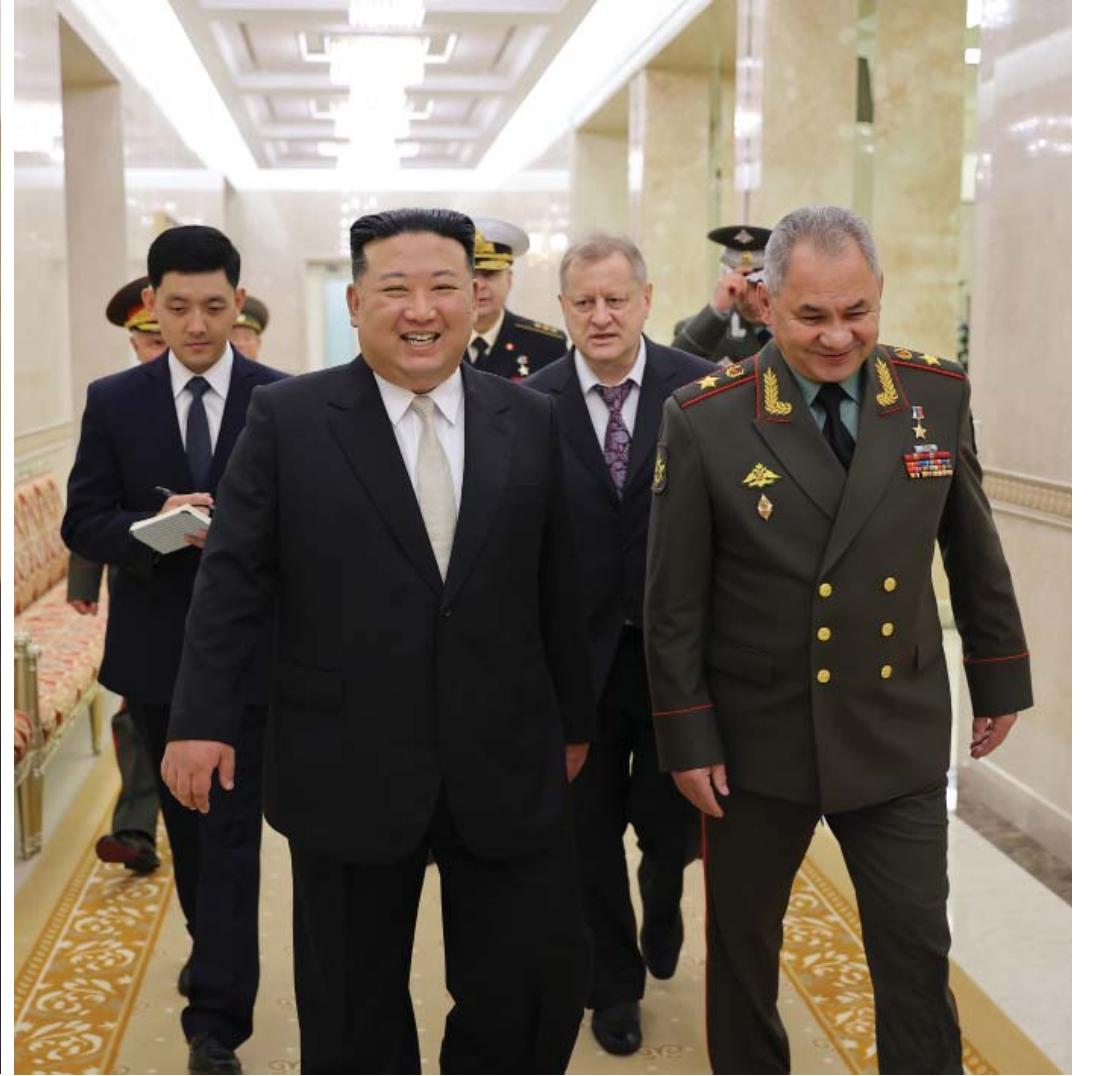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은 자기의 존엄과 명예, 자주권을 보위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었으며 평화애호력량과 진보적인류를 대표하여 제국주의지배세력에 맞서 싸운 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이었다고 하시면서 조종 두 나라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위대

한 승리는 세기를 넘어 오늘도 변함없이 거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들의 고귀한 삶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할것이며 반제자주, 사회주의위업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현연의 뉴대를 맺고 정의와 진리의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공세를 과감히 짓부셔나가는 조종 두 나라 인민의 단결의 력사와 전통은 후세토록 굳건히 계승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로씨야련방 국방상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7월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축하방문하고있는 셰르게이 소이구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소이구 국방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소이구 국방상과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소이구 국방상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보내온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부전 로씨야련방 대통령의 친서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따뜻하고 훌륭한 친서를 보내준 부전대통령에게 사의를 표시하시면서 우리 인민의 영

광스러운 승리의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 소이구 국방상이 이끄는 군사대표단을 평양에 보낸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였다.

담화에서는 뿌리깊은 조로친선의 역사를 감회깊이 추억하면서 국방안전분야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견해일치를 보았다.

담화는 시종 친선적이며 전투적우의

의 감정이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담화가 끝난 후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소이구 국방상이 성의껏 마련한 선물을 올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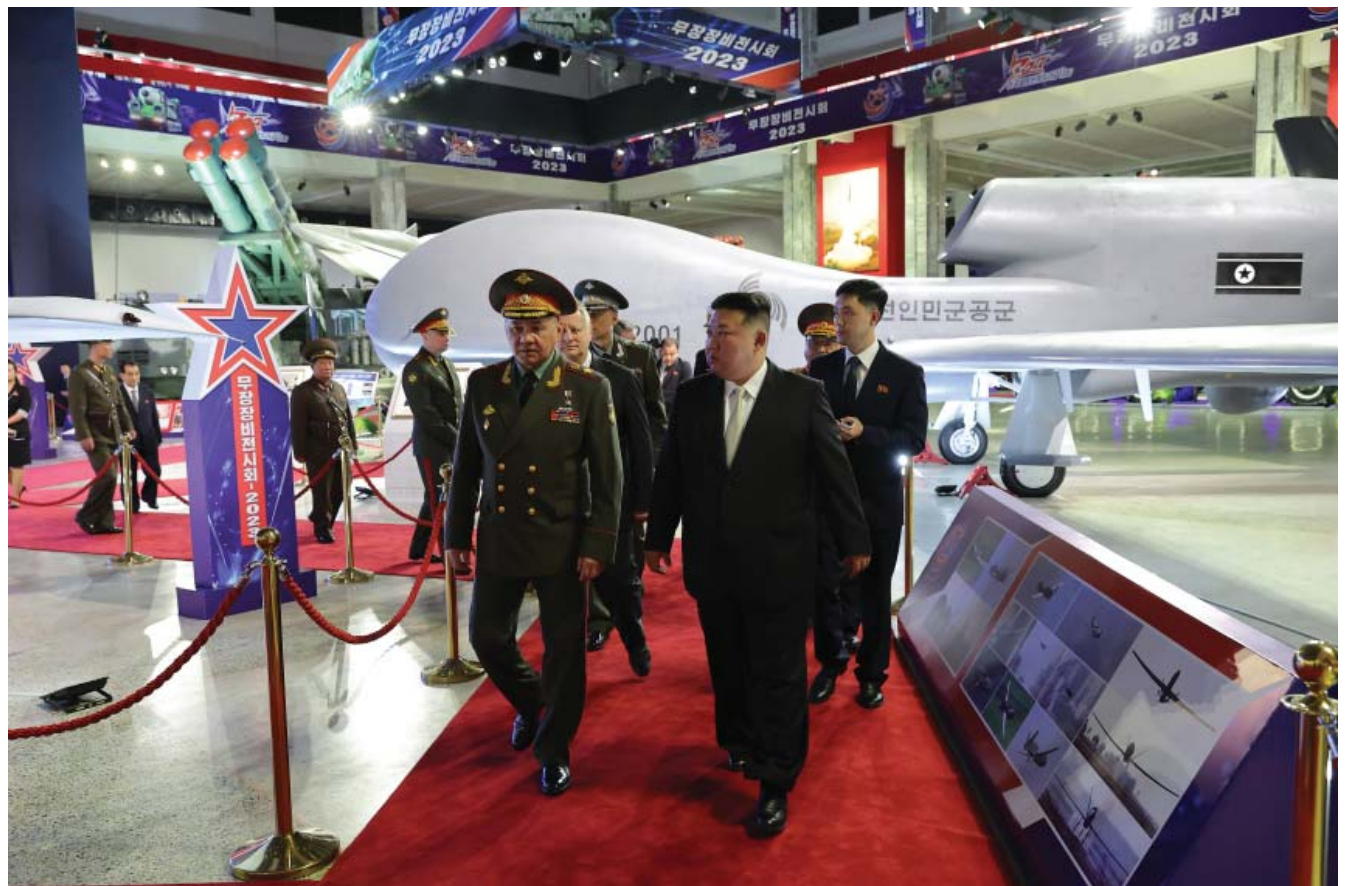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로씨야련방 국방상의 우리 나라 방문을 기념하여 자신께서 마련하신 기념품을 소이구 국방상에게 선물하시였다.

중요한 계기에 이루어진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과 셰르게이 소이구 로씨야련방 국방상사이의 상봉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관계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키고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안보환경에 대처하여 국방안전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협력동과 협조를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전승 70돐을 맞으며 셰르게이 소이구 로씨야련방 국방상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주최로 《무장장비전시회-2023》이 진행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7월 26일 셰르게이 소이구 로씨야련방 국방상과 군사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시회장에 도착하시자 강순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이 영접보고를 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국방성 지휘관들, 조선인민군 대원합부대, 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셰르게이 소이구 로씨야련방 국방상과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 성원들이 전투적우의와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대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데 대하여 다시금 사의를 표시하였다.

셰르게이 소이구 로씨야련방 국방상은 김정은 원수님께서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체류일정을 깊이 관심해주시고 뜻깊은 계기를 마련해주시며 환대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셰르게이 소이구 로씨야련방 국방상과 함께 신행무장장

비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셰르게이 소이구 로씨야련방 국방상에게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발전계획에 따라 연구 개발생산되어 최근시기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있는 무기전투기술기체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세계적인 무장장비발전추세와 발전전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셰르게이 소이구 로씨야련방 국방상과 담소하시면서 제

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두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국제적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로씨야군대와 인민이 강력한 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쟁취하리라는 확신을 거듭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셰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초청하시어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고 오찬을 함께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돛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축하방문하고있는 러시아 국방군사대표단 단장인 셰르게이 쇼이구 국방상을 7월 27일 오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초청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셰르게이 쇼이구 국방상을 본부청사에 초청한 기념으로 사진을 찍으신 후 집무실에서 동지적인 분위기속에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셰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하시고 셰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과 많은 의견을 교환하시였다.

담화에서는 국방안전 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기술적협동과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이어 셰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과 오찬을 함께 하시였다.

셰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은 김정은 원수님께서 자신과 러시아 국방군사대표단의 평양방문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따뜻이 환대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

고 김정은 원수님께서 급변하는 군사정치정세에 대한 조선로동당과 국제안보환경과 조선반도지역의 정부의 평가와 원칙적립장을 피력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셰르게이 쇼이구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연방 군사대표단을 위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승절인 7월 27일 셰르게이 쇼이구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연방 군사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연회에 앞서 셰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을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보내온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부원 로씨야연방 대통령의 선물을 정중히 전해 올리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원대통령이

뜻깊은 선물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연회에서는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연설하시였다. 그는 두 나라의 혁명선렬들이 혈전의 고비를 함께 넘으며 마련하고 소중한 조로친선이 김정은동지와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부원동지의 각별한 관심속에 불패의 전우관계, 백년대계의 전략적관계로 승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이시며 무력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위임에 따라 그는 싸우는 로씨야연방군대와 인민에게 공화국정부와 무력,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가장 뜨거운 전투적경의와 지지성원을 보내였다. 이어 셰르게이 쇼이구 국방상이 연설하시였다.

연설자는 로씨야인민의 마음을 담아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돛에 맞이한 전체 조선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였다. 조선인민군은 백두산혈전과 존경하는 세대의 전투전통을 영광스럽게 계승

하고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군건설에 매진함으로써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군대로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시였다. 연설자는 조국해방전쟁에 참전한 모든 로병들의 건강장수와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과 복리를 기원하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다방면적인 협조를 시종일관 발전시켜나갈 로씨야연방의 용의를 피력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

비치 부원 로씨야연방 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에서는 로씨야연방 군사대표단을 환영하는 공연이 있었다.

연회석상에서 김정은 원수님께서 셰르게이 쇼이구 국방상을 비롯한 로씨야연방 군사대표단의 주요성원들과 따뜻이 담소하시면서 동지적우의를 더욱 두터이 하시였다.

연회는 시종 화기애애하고 친선의 정이 차넘치는 속에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대공연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평양을 방문한 친선의 사절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존엄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행로에 승리의 거대한 봉우리로 솟아 영웅성과 정의의 상징으로 빛나는 전승 70돐을 청사에 특기할 영광과 계승의 대축전으로 기념하는 환희와 격정을 더해주며 7월 27일 0시 경축대공연이 진행되었다.

동방일각에 일떠선 첫 인민의 나라, 신생공화국이 《전쟁의 세기》로 불리우는 20세기의 한복판에서 제국주의피수인 미제국주의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한 력사의 7.27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2만 5,568일의 장구한 나날 전승의 3년과 그 승리를 지킨 불굴의 70년이 주는 값비싼 명예와 존엄을 안고 우리 국가와 전체 인민의 명절인 전승절을 의의깊게 맞이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로 공연장소는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관람에 앞서 위대한 전승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리홍총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따듯이 맞이하시고 친선의 정이 넘치는 담화를 나누시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홍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승절을 맞으며 김정은원수님께 보내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친서를 정중히 전해드리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면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리홍총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단장에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조종인민의 공동의 명절을



경축하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7.27이 더욱 빛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습근평동지가 당 및 정부대표단을 파견해준것은 조종친선을 매우 중시하는 총서기동지의 의지를 보여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승을 안아오기 위해 중국인민지원군용사들이 흘린 고귀한 피와 송고한 정신과 넋을 우리 인민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형제적중국인민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중국인민과 손잡고 나아갈것이라고 확인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표단 단장들과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올리였다.

또한 대표단 단장들에게 친선의 정이 어린 꽃다발을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 전령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을 비롯한 경축행사참가자들이 공연을 보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과 로씨야연방 군사대표단 성원들이 공연관람에 초대되었다.

대공연에는 공훈국가합창단, 국무위원회연주단, 왕재산예술단을 비롯한

중요예술단체들과 사회와 군대의 예술단체, 예술교육기관 예술인, 학생들이 출연하였다.

서곡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우리의 7.27》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전승찬가들, 계승의 년대들에 메아리친 신념의 노래들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불멸의 송가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를 통하여 출연자들은 세계 《최강》을 떠드는 미제의 오만성과 전횡이 극도에 달하였던 준엄한 시기에 우리 인민을 제국주의폭제를 징벌하는 백철불굴의 정신과 무비의 힘을 지닌 최강자들로 키우시고 인류가 경탄하는 기적의 전승사를 창조하시여 반제자주, 민족해방

혁명의 거세찬 폭풍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만고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승열병식장에서 승리를 선언하시는 기록하신 영상이 무대 화면에 모셔지고 친근하신 음성이 만장을 울리자 관람자들은 주제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강철의 신념과 의지로 준엄한 반제반미성전의 거대한 승리를 쟁취하시여 조국의 운명과 인류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신 불세출의 령장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에 넘쳐 열광의 박수를 터쳐올리였다.

싸우는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높이 울려 퍼졌던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의 길로》를 비롯한 전시가요들이 전설적인 년대에 대한 경건한 추억을 불러오며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삶과 죽음, 피와 눈물, 사랑과 증오로 이어진 전쟁의 3년간 조국방위자들이 포연탄우를 뚫고 육박해간 무수한 진군길, 원수격멸의 백병전과 승리를 믿어 아낌없이 바친 애국의 열과 정이 뜨겁게 맥박치는 종목들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영웅적군인이 떠올린 우리 국가의 존엄과 명성이 얼마나 준엄한 결사항전의 산아인가를 감명깊게 구가하였다.

평양을 찾은 친선의 사절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중국노래련곡과 로씨야노래련곡이 울리자 장내는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맺어지고 공고화된 친선단결의 력사와 전통이 세기와 더불어 즐기차게 계승발전되리라는 확신과 우애의 열기로 달아올랐다.

공연은 종곡 《인민은 우리 당에 영광 드리네》, 《우리의 7.27》로 막을 내렸다.

공연이 끝나자 열광의 환호성이 또다시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본사기자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다채로운 경축행사 진행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모임들이 진행되었다.

지난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주제적인 군사사상과 전법, 비범한 명군술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를 이룩하고 세기를 이어오는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해설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지난 19일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위대한 승리의 전통으로 빛나는 7.27》이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되었다.

전람회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확인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정전협정문건을 검토하고 비준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비롯하여 지

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어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강철의 령장의 천출위인상을 보여주는 사진문헌들과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사회주의 수호전의 피어린 력사를 헤쳐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헌신을 보여주는 영상사진문헌들이 전시되어있다.

또한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상분출시험준비실태를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전략작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신형대륙간도미사일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비롯한 영상사진문헌들이 전시되었다.

참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면 공화국의 성스러운 승리의 력사에 아로새겨진 철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공화국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 철의 진리를 더욱 깊이 새기며 경애하는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부흥공국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평양국제영화관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경축하여 영화상영기간이 21일 개막되었다.

영화상영기간에 각기 영화관, 문화회관들에서는 수령과 조국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원수격멸의 성전에 용약 떨쳐나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한 조국방위자들의 위훈을 수록한 기록영화 《영원한 승리의 7.27》,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공화국기》, 《승리의 전통》 등과 《그들은 평범한 전사들이었다》, 《강호영》, 《군기》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예술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옥류전시관에서는 24일 뜻깊은 전승절과 더불어 우리 공화국의 긍지높고 자랑스러운 백성의 력사를 송엄한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 보이며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가 개막되었다.

전람회장에는 유화 《진격의 길에서》, 아크릴화 《눈내리는 다박솔초소를 찾으시어》, 유화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동지》를 비롯하여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명군술로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시었으며 세기를 이어오는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을 모신 미술작품들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날로 번모되는 공화국의 모습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전세대들의 불굴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가부흥의 전환적극면을 힘차게 열어나가는 인민들의 투쟁을 담은 조선화 《화성저리의 불

야경》, 《평남탄전의 선구자들》, 조선보석화 《리명수동의 밤》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도 전시되어있다.

이밖에도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 전쟁로병들과 로동계급, 직맹원들의 상봉모임, 전쟁로병들과 녀맹원군, 녀맹원들의 련찬모임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이 있었고 전승 70돐을 경축하는 직중중앙로동자애호선진대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기동애호선진대의 합동공연, 청년학생들의 전시가무대 《영원한 승리의 노래》, 농민맹중앙애호선진대와 농업근로자들의 경축공연 등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행사를 통하여 공화국인민들은 철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주체조선의 진승의 력사와 전통을 영원하며 전승세대의 고귀한 투쟁정신을 빛나게 계승하여 제힘으로 거기어 우라시 사회주의의 부흥발전을 안아올 불같은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 다

인류사에 전승신화로 아로새겨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된 경축행사장들마다에서 빛나는 승리의 전통을 세기와 세대를 이어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어온 천만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드높은 환호성으로 메아리쳤다.

준엄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세기와 세대를 이어 련전련승해은 공화국인민이다. 전승세대의 후손으로서, 력사학자로서 철세위인들의 령도를 받는 공화국의 위대한 승리전통에 대해 피력해 보려고 한다.

* * 인류사에는 수많은 전쟁이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공화국인민이 벌인 지난 조국해방전쟁처럼 창건된지 2년밖에 되지 않는 신생국가가 지주상의 제일 포악하고 《최강》을 자랑하는 침략국가와 그 추종무리들을 상대로 싸워 위대한 전승을 이룩한 실례는 찾아볼 수 없다.

력사가 엄정히 기록한바와 같이 일거에 공화국을 병탄하고 자기의 지배권을 전 조선반도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에 확대하려던 미국은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당하였다.

청소한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타승하고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게 된것은 천하제일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처럼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비범한 명군술로 침략자들을 타승한 전설적령장은 알지 못하고있다.

즉시적인 반공격전, 제2적 후전선형성, 적국적인 진지방어전과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고사냥군조운동, 지적수조활동, 기동포병전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신묘한

전법과 전술들에 의해 전쟁이 일어났지 3일만에 서울이 해방되고 악명높은 미제살인장군들과 추종국가군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안해낸 《크리스마스총공세》, 《제한공세》, 《하기 및 추기공세》, 《금화공세》, 《신공세》는 여지없이 동지박산났다.

전쟁에서 참패를 모면해보려는 미제의 발악이 최절정에 달하였던 시기 최고사령부에서 진행된 추주기, 모란봉지하극장에서 진행된 전후복구건설전망전람회, 포화속에 태어난 무상치로제와 공장대학, 전선부대들에 조직된 화선휴양소, 포화속에서 진행된 군무자에술축전 등 가렬적절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꽃피던 가지가지의 경이적인 사변들과 일화, 조치들은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을 필승의 신념을 안고 원수격멸의 성전으로 떨쳐나서도록 추동하였다.

불세출의 령장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하기에 미국력사에서 항복서에 서명한 첫 채전장군인 클라크는 기자들에게 항복서에 수록한 만년필을 보이며 《그러나 넌들 어떻게 하겠는가. 김일성장군과 맞섰는데 나팔레옹이 백이 있어도 조선을 당할수는 없다》고 말했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다던 아이젠하워도 구슬픈 어조로 《대가는 컸다. 이것은 비극적인것이었고 또 끔찍한것이였다》고 토설하였으며 미국의 출판물들은 《미국은 전쟁에서 패하여 슬픔에 잠겨있다》고 전하였다.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조국해방전쟁에서 공화국인민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의 힘을 믿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떠선 군대와 인민은 그 무엇보다도 정복할수 없다는 철리를 력사에 뚜렷이



새기었다. 위대한 전승의 축포가 오를 때로부터 지금까지 흘러

온 70년은 공화국인민들이 철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라 승리의 7.27을 지키고 더

욱 빛내어온 력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언젠가 지난 세기 50년

대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서 뉘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승이라던 비대한 힘을 믿고 설치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은 영웅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반제반미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끝없이 빛내이신 회세의 천출명장이시다.

일찌기 유년시절부터 위대한 수령님과 집군의 길과 조국사수의 불바다도 함께 헤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 기간 비범한 지략과 무비의 단력과 배짱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 해주셨습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승리상이 내려다보는 보동강가에 쇠사슬에 묶여 처박혀있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볼 때면 나는 깊은 감회에 잠겨곤 한다.

1968년 1월 신성한 우리 령해에 침입했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조선인민군 해군에 나포되었을 때 미국은 간첩선과 체포된 선원들을 놔주지 않으면 핵무기까지 사용하겠다고 으르렁댔다.

미제에 의해 새 전쟁의 구름이 밀려오고있던 그 엄중한 시기 미국놈들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겠다고, 배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나포한 미제의 무장간첩선을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후대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미국놈들에게서 빼앗은 간첩선이라고 말해주겠다고 선언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인민의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령도하시어 허세생각기를 부리던 미국을 무릎 꿇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고난의 행

군, 강행군시기 선군정치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드시고 공화국을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심으로써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갈수 있는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필승의 기상과 무비의 단력과 배짱,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민족사상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천하제일위인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현명한 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불멸의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고 7.28의 기적적승리, 《9월의 열혈폭풍》, 《11월대사변》과 주체조선의 철대적합의 상징인 대륙간도미사일 《화성포-17》형과 《화성포-18》형의 탄생 등 민족사에 특기할 패승들을 다룬발적으로 기록하시였다.

정의와 평화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공화국의 초강세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총파산의 운명에 직면하고 이 땅에는 반미대승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

세기를 이어 계속된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공화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시러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인민은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과 본태를 온 세상에 과시하며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갈 것이다. 만고철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어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러는것이 력사가 보여주는 만고의 진리이다. 력사학교수 박사 김은택

영웅조선의 7.27



위대한 전승의 축포가 하늘에 터져오르던 그 때로부터 어언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월은 멀리 흘러갔어도 공화국에 불멸의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승리의 7.27의 역사적 의미는 전후의 나날이 나라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무비의 영웅성과 더불어, 그 빛나는 표창인 금별메달과 더불어 오늘 더욱 찬란히 빛을 뿌리고 있다.

《영웅조선》, 《영웅인민》! 이것은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타도한 공화국과 우리 인민에게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안겨준 고귀한 명함이고 소중한 경의이다.

하다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메야 했던 이 땅의 인민이 어떻게 되어 세계의 강자를 때려부신 영웅인민으로 자라날 수 있었는가.

주체39(1950)년 6월 26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시길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일꾼들은

부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저도 모르게 긴장해짐을 어쩔 수 없었다. 침략자들에게 의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엄중한 위협에 직면한 시기였던 것만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의 국면을 전환시킬 중대한 임무를 주시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순간 일꾼들은 그나큰 걱정과 놀라움에 휩싸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표창문제에 대해 교시하시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전에서 용감성과 영웅성을 발휘한 인민군군인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공민의 최고영예인 공화국영웅칭호를 제정하여야 하겠다고, 전투승리를 보장하는 데서 위훈을 세운 병사들과 지휘관들에게 수여할 훈장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었다.

모두가 전쟁의 운명을 두고 걱정을 앞세우던 그때 그것도 전쟁이 일어난 다음날

에 조국보위의 선전에서 위훈을 세운 인민군군인들에게 가장 높은 칭호와 표창을 안겨 주고 싶으시어 친히 공화국영웅칭호제정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어 어찌 그들의 심정이 걱정으로 설레이지 않을 수 있랴.

이렇게 되어 주체39(1950)년 6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제정할 때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게 되었다.

전쟁개시후 5일만에 발표된 이 격동적인 소식은 원수 격멸의 선전에 떨쳐나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들에게 무비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정령이 발표된 때로부터 얼마후인 1950년 7월 15일, 공화국에서 첫 영웅들이 태어나는 력사적인 시각이 도래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침략자들을 격멸하기 위한 선전에서 특출한 위훈을 세운 10여명의 군관, 병사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가 수여되었던 것이다.

전쟁개시 3일만에 진행된

서해해방을 위한 돌격전의 선두에서 조선인민군 땅크병의 무비의 용감성을 과시한 전기련영웅, 미제침략군과 처음 대결한 오산전투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본태를 단단히 보여준 제4보병사단 제18보병련대의 련대장 리훈영웅, 4척의 어뢰정도로 미제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상시키는 세계해전사의 기적을 창조한 제2어뢰정대의 지휘관 김근우, 리완군영웅들, 《하늘의 요새》라고 호언장담하던 미제의 폭격기 《B-29》를 격추하여 조선인민군 공군의 용맹을 세상에 남김없이 펼친 비룡사 리문순, 김기우영웅들...

그때로부터 3년간에 걸치는 전쟁의 전 기간 전선과 후방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위훈을 세운 수많은 영웅들이 배출되게 되었다. 전쟁 전 기간 인민군용사들은 《빛난 훈장 가슴팍에 내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말로써 안기리》라고 노래하며 전투에서 용맹을 떨쳤고 후방의 녀인들은 적의 맹렬한 폭격속에서도 노래 《우리님 영웅되셨네》, 《아무도 몰라》를 부르며 전

선원호와 전시생산투쟁을 중단없이 벌여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큰 나라보다 영웅이 많이 나오면 안된다고 잡소리를 치는 사대주의자들의 꾀변을 단호히 일축해버리시며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영웅으로 키워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행기 사냥군운동을 몸소 창조하시던 나날에 있는 일이다.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비행기 사냥군조를 조직할 때 대한 최고사령관명령에는 적비행기 3대를 떨어뜨리면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할 때 대한 내용도 있었다. 사대가 끝수에 배인 자들은 그렇게 되면 큰 나라들보다도 영웅이 더 많아진다고 시비해나섰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에 영웅이 많으면 좋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고, 영웅이 1 000명이 나오면 미국비행기가 3 000대가 떨어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과 군대가 미제와 잘 싸워 다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교시하시었다.

하여 싸우는 고지는 물론 방방곡곡에서 비행기 사냥군 조운동이 활발히 벌어져 미제의 공중비적들은 마가들의 락엽처럼 떨어졌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전쟁 3년간 무려 598명(그중 2중영웅 5명)의 공화국영웅이 배출되는 자랑스러운 화폭이 펼쳐질 수 있었다.

정령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시어 이 나라의 수많은 평범한 아들딸들이 영웅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

전후의 나날 공화국영웅으로 된 군인들가운데는 가정 환경과 해방전의 경력때문에 마음속고충을 겪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항공사령부(당시) 주요지휘위원으로써까지 성장하여 전승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리활영웅도 있고 전쟁전야에 자기가 이끌던 남조선군 대대와 함께 의거입북하여 인생의 새 출발을 한 강태무, 표무원영웅들도 있다.

강태무, 표무원영웅들이

공화국의 품에 안겨 살아온 나날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화국의 품이 온 민족이 안겨살 진정한 조국의 품이라는 것을 피절은 체험으로 깨달은 그들이었기에 진정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수하기 위해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무비의 용맹을 펼칠 수 있었다.

강태무영웅은 한생을 총화하며 수기에 이런 글을 남겼다.

《언젠가 최덕신이 나의 인생로정을 눈여겨보고서 젊어서 일찌기 끝은 길을 온 것이 부럽다면서 자기는 한생을 해마다 그 길을 멀리 에돌아 늦게야 왔노라고 만지시란을 감추지 못하였다. ...최덕신이 나의 삶에서 끝은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1949년 5월의 입북거사를 녀두에 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삶에서 분수령을 이룬다. 의거입북후 나의 삶은 질과 내용에서 근본적 전환을 이루었던 것이다.》

인제인가 외국의 한 언론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공화국이 이룩한 승리에 대하여 《너무도 얻어맞아 만신창이가 되다못해 아예 없어질 뻔한 미국의 《큰 주먹》과 세계의 찬란한 눈길을 모으며 승리의 단상에 오른 조선의 《작은 주먹》! 크지만 약한 리유, 작지만 강한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대서특필하였다.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신생조선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전승을 이룩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요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만고절세의 위인이시며 강철의 평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을 전승의 기적창조로 이끌어 주시었기에 이 땅에서는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중적영웅주의가 높이 발휘될 수 있었으며 공화국은 미제와의 가렬치열한 전쟁에서 끝끝내 승리를 이룩하고 세계가 경탄하는 영웅의 나라로 존엄될 수 있었다.

박금순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7월은 참으로 의미깊은 달로 되고 있다.

1년 열두달중 한달인 7월이 승리라는 이름과 더불어 빛을 뿌리기 시작한 것은 70년전 바로 이달에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남김없이 과시한 위대한 전승의 금자탑이 세워진 그때부터이다.

미국이 리승만피괴를 내몰아 도발한 침략의 6.25전쟁은 3년후 세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고 조선이 안아온 승리의 7.27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것은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군사기적이었고 위대한 조선인민만이 창조할 수 있는 전승신화였다.

그때부터 7월이 오면 조선인민은 승리의 축포를 환희롭게 터쳐올리며 기쁨의 춤바다를 펼쳐놓았다.

승리자의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에 넘쳐 《침략의 6.25뒤에는 승리의 7.27이 있다.》고 웨쳐왔다.

그렇듯 자랑스럽게 70돌기를 새겨온 조선의 7월이다.

이 7월은 단지 전승의 7.27로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 달력을 들여다보면 누구나의 눈가에 환희롭게 안겨오는 날이 있다.

7월 28일.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7.28의 기적적승리라고 부르고 있다.

2017년 7월 4일, 미국이 241번째로 《독립절》을 쇠던 그날에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1차시험발사에 단번성공하였다는 경이적 소식이 온 세계에 전해졌다. 조선의 힘이 우주에 닿고 지구를 통째로 울린 사변적인 7월 4일이다.

그로부터 불과 20여일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2차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완전성공하였다는 힘은 더욱 공고한 것으로 되었다.

조선은 작어도 큰 나라로 되게 한 그날들이 세계에 선언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침략의 본거지가 어디에 있는 조선을 건드려면 누구도 무시 못한다는 것이었다. 조선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를 대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다.

아직 조선이 봉건의 오랜 잡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대양 건너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던 19세기 중엽 평양의 대동강으로는 미국의 침략선 《서먼》호가 그 최고양이마냥 거여들었다. 그때부터 시작된 미국의 조선침략사는 20세기 초엽 일본의 조선강점과 지배를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데로 이어졌고 1945년에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이어졌다.

뒤이어 미국은 전 조선을 지배할 목적으로 리승만피괴들을 사육하여 1950년 6월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

그때 갖 강건된 공화국이 가진 무장장비라야 보충정도였다. 그런 무기를 가지고서는 대양 건너에 트고앉아있는 미국이라는 침략의 본거지를 겨눌 수 없었다.

미국이 도발한 전쟁은 자연히 조선반도의 경내에서 치러지게 되었다. 결과 조선의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들이 폐허로 되고 수많은 무고한 인명들이 생을 잃은 때 침략의 불을 지른 미국 땅에는 포탄 한발 떨어지지 않았다.

비단 조선전쟁만이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 지금까지 미국본토에는 포탄 한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에서 7.28의 기적적승리로 형세는 달라지게 되었다.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의 쓰디쓴 패전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미국이라는 침략의 본거지가 무사치 못하게 되었다.

절대적 힘, 조강력을 떠올린 조선을 이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되었다. 전승의 7.27을 영원한 승리의 명절로 해마다 성대히 경축할 수 있게 되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승리에서 영원한 승리로! 7월의 사변적인 날들은 이렇게 속삭여주고 있는 것이다.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고 미국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패자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금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조선의 7월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7월이 새겨주는 력사의 진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판에는 모연배인 공화국기와 《생명보호요청서》가 나란히 전시되어 참관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전자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격렬한 위훈을 세운 비행기 사냥군 조원이가 가슴속에 품고있던 것이라면 후자인 《생명보호요청서》는 등불에 타죽는 부나비신세가 되어 땅에 곤두박질한 적비행기 사냥군 조원이가 가슴에 간직한 것이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 사냥이 갈구한 것은 하나의 구차한 목숨이었다.

나란히 놓여있는 두 전승품은 영원한 삶의 품, 행복의 전부인 조국을 위하여 목숨도 기꺼이 바쳐 싸운 조국수호자들의 무한 대한 정신적 자세와 맺은 팔라에 유혹되어 전장에 나갔고 저 하나의 목숨부지만을 생각하는 침략자들의 절대적인 멸세를 보여주는 뚜렷한 증명이다.

모연배인 공화국기와 《생명보호요청서》, 정녕 이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달라질 수 없는 조미대결전의 명백한 승패의 법칙을 소리쳐 전해주는 산증전, 력사의 교방장이다.

리창범

위대한 전승 70돌을 맞으며 참관자들의 행렬이 그칠새 없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판.

대전해방작전대형전경조각판 하나하나의 조각상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대전해방전투에서 완전포위섬멸된 미제침략군 제24보병사단 사단장 띠눔을 생포한 19살 인민군병사의 조각상이다.

띠눔의 철갑모를 한발로 지그시 밟고앉아 승자의 호탕한 웃음지며 장난기조차 엿보이는 꼬마병사의 모습.

인민군병사의 발밑에 깔려있는 패전장군의 철갑모는 《상승》사단이라 으시며 조선전쟁에 코를 들이밀었다가 처참하게 얻어맞고 비참한 꼴로 포로가 된 사단장 띠눔의 비굴한 상투처럼 안겨온다.

패전장군의 철갑바가지앞에 새겨진 왕벌 두알은 대전의 불바다속에서 오행 너절한 목숨을 건져보겠다고 장성우를

벗어던지고 허물한 사병운차림으로 가는 참관로정에 있는 하나하나의 조각상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대전해방전투에서 완전포위섬멸된 미제침략군 제24보병사단 사단장 띠눔을 생포한 19살 인민군병사의 조각상이다.

띠눔의 철갑모를 한발로 지그시 밟고앉아 승자의 호탕한 웃음지며 장난기조차 엿보이는 꼬마병사의 모습.

인민군병사의 발밑에 깔려있는 패전장군의 철갑모를 입고 나라없는 설움속에 울리보던 유년시절과 해방후 조국 땅에서 마음껏 배우며 행복했던 꿈같은 포로가 된 사단장 띠눔을 가슴속에 고이 안고 있는 애 어린 병사였다.

부모처자도 못다 준 행복을, 참다운 배움의 권리를, 인간의 참된 삶을 해방된 조국에서 체험한 신생조선의 아

한 조각상이 내리는 준엄한 경고를 두고

고 음악 판가 리절전에 펼쳐나선 꼬마병사.

그런 병사 앞에선 아메리카 제국의 로장도 한갓 목숨을 구걸하는 패전군으로 되고 말았다. 그런 군대와 인민 앞에선 대전이 아닌 조선전쟁전체가 미제의 침략장군들을 매망의 무덤으로 되어버렸다.

꼬마병사만큼 청소하였지만 바로 그 꼬마병사처럼 뜨거운 조국애와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를 간직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마침내 승리자가 되었다.

가난이 폭 배인 토스레우를 일고 나라없는 설움속에 울리보던 유년시절과 해방후 조국 땅에서 마음껏 배우며 행복했던 꿈같은 포로가 된 사단장 띠눔을 가슴속에 고이 안고 있는 애 어린 병사였다.

부모처자도 못다 준 행복을, 참다운 배움의 권리를, 인간의 참된 삶을 해방된 조국에서 체험한 신생조선의 아



들었다.

바로 그리 하기에 김일성장군님 찾아주시는 학교, 나의 땅을 다시는 침략자 미제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중함 그 모든것을 지켜 키보다 더 컸을 보충을 들

가 되었다.

령토의 크기와 인구수에 있어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 덩치 큰 《초대국》, 수백년동안 수백차의 전쟁에서 한번도 패한적 없었던 미제를 수차례의 면전에서 깔고앉아 영웅조선, 영웅군대, 영웅인민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냈다.

세월은 흘러도 승리는 련련히 이어지고있거니,

전후의 장장 70년동안에도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은 과거를 잊고 덤벼드는 대아메리카제국에 패자의 락인을 번마다 더 깊이 찍어놓고 인류의 정의와 세계평화의 수호신으로, 사회주의의 억척보루로 자랑스럽게 솟구쳐올랐다.

70여년전의 꼬마병사와 《상승》사단장, 대조되는 두 이름에 조미대결전에서 련련승의 전승신화를 창조하

는 영웅조선의 자랑찬 력사와 수치스러운 패배를 기록하는 미국의 쓰디쓴 력사가 다 비껴있는 것이다.

그렇다.

그산만만하고 배짱든든하게, 호호탕탕하게 웃음짓는 꼬마병사의 발밑에 오늘날까지도 패전장군의 철갑바가지가 짓눌려있듯이 오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괴육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도발책동에 매여달리고있는 미제의 가스롭고 끈수없는 망동질을 받아 패로 거역히 굽어보는 것이 바로 우리 인민이고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장병들이다.

만약 미제가 서신락일의 비참한 운명을 선고받은 조선전쟁을 예세 부정하며 《합의 만능》에 사로잡혀 다시금 무모하게 이 땅을 침략하려한다면 그 후로는 어제날 같은 뼈아픈 수처로만 끝나지 않을것임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판의 조각상은 경고하고 있다.

강성애



《대북적대행위를 멈추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층의 반전, 반윤석열투쟁 활발히 전개 —

최근 남조선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반전, 반윤석열투쟁에 종교계가 적극 합세해나가고있다.

올해 상반기기간에만도 《그리스도교녀성총연합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은 거의 매달 840여개의 로동운동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윤석열(정부)는 대북적대행위를 멈추라!》, 《한미연합군사연습중단을 평화의 길을 열자!》 등의 구호들을 웨치며 반공화국전쟁연습을 중단할것을 강하게 요구해나갔다.

이와 함께 조선반도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실현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평화대회 등을 결의한데 따라 1 100여개의 각계층 단체들과 《평화통일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투쟁기운을 고조시켰다.

종교단체들은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굴종행위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며 역도의 퇴진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한성공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은 윤석열역도가 굴욕적인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치욕스러운 일본

행각에 나섰것과 관련하여 각지역의 1 530여개 시민사회단체, 9 600여명의 각계 인사들과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국미사》 등을 진행하며 각계각층이 역적패당의 친일굴종행위를 규탄하는 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역도의 일본행각간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방안의 무효화와 남조선일본(정사회담)반대,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 미일남조선 3자군사협력중단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매일같이 벌이며 역적패당을 단죄하였다.

남조선의 4대총단소속 단체들도 각지역에서 《시국미사》, 《시국기도회》, 《시국선언》발표기자회견 등을 열고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웨치며 역도퇴진투쟁을 힘있게 벌였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종교단체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투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종교적리념에서 벗어나 정치적립장을 발표하고있다》고 하면서 종교단체들의 반전, 반윤석열투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있다.

각계층의 반윤석열투쟁에 중

요단체들까지 적극 합세해나서며 각종 형태의 투쟁을 벌이고있는 사실은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환멸과 분노가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선 대중적인 성격을 띠고 거세게 폭발하고있으며 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사회정의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이 남조선의 전반민심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여 지난 3월부터 15일까지 남조선의 전 지역에서 벌어진 《민주로총》의 총파업투쟁도 그것을

시사하고있다.

이 기간 《민주로총》은 《로동, 민생, 민주, 평화과제 윤석열(정권) 퇴진 민주로총 전국로동자대회》, 《윤석열퇴진 초불집회》를 벌였으며 총파업 마지막날인 15일에는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에 망라된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윤석열(정권) 퇴진 7.15범국민대회》를 진행하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로동조합》과 《전국건설로동조합》도 당국의 로동조합탄압중단과 최저임금인상, 로동환경개선 등을

요구하여 시위와 집회를 전개하며 반(정부)투쟁기운을 더욱 고조시켰다.

2주일간에 걸친 《민주로총》의 총파업투쟁에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연 35만명이 떨쳐나 결의대회, 거리행진, 초불문화제, 서명운동 등 150여차례의 각종 투쟁을 벌였으며 여기에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합세하였다는것은 윤석열역도의 검찰과소통치를 심판하려는 민심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일본의 조선강점을 도와준 불구대천의 원수

미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는 길에서 서로 공모결탁하여왔다.

이를 증명해주는 실례의 하나가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에 조작된 《가쓰라-타프트협정》이다.

1905년 일본에 기여한 미 육군장관 타프트는 당시 일본수상이었던 가쓰라와 비밀 회담을 진행하고 7월 29일 이른바 《가쓰라-타프트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에서는 일제가 필리핀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인정하며 그 대가로 미제는 일제의 조선침략을 적극 협력하고 조선에 대한 《보호통치》를 인정한다는것, 미제가 영일동맹에 가담하며 극동침략에서 미, 일, 영제국주의가 공동행동을 취할것 등이 지적되었다. 이 협정은

국비에 붙여져다가 1925년에 세상에 폭로되었다.

《가쓰라-타프트협정》체결로 조선강점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담보받은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고 40여년간에 걸치는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쳐왔다.

이처럼 지난 20세기초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침략과 약탈에 이골이 난 미일 두 제국주의의 공모결탁의 산물로서 그 죄악은 두고두고 용서받을수 없는것이다.

미일사이의 범죄적인 공모결탁행위는 그후에도 계속되었다.

일제배후후 미국이 이전 일제반동군과 대본영의 작전장교들을 전범자로 처벌할 대신 《력사연구협회》와 같은 비밀기관 등을 조직하여 극

동침략전쟁계획과 《북벌전쟁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에 기초하여 조선전쟁을 도발한 사실, 조선전쟁시기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부추기고있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빈번히 미국, 남조선호전파들과 공화국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이고 지어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계획을 모의하는 《해협(그루바)에 가담하려 하고있는 사실은 미일사이의 공모결탁행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잘 말해준다.

역사와 현실은 전 조선을 라고있으려는 미일반동들과 그에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매국역적무리가 있는한 조선반도와 지역 평화와 안정은 언제 가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들어 환영하는가 하면 반공화국(3각공조)를 떠들며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을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부추기고있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빈번히 미국, 남조선호전파들과 공화국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이고 지어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계획을 모의하는 《해협(그루바)에 가담하려 하고있는 사실은 미일사이의 공모결탁행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잘 말해준다.

역사와 현실은 전 조선을 라고있으려는 미일반동들과 그에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매국역적무리가 있는한 조선반도와 지역 평화와 안정은 언제 가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하여 커다란 인적, 물적피해가 있었다고 한다.

수많은 사망자와 실종자, 부상자가 생기고 근 2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수만세대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주력, 도로, 강하천제방 등 각종 시설들에서 1 900여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40여개의 문화유적들이 침수 및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으며 3만 1 000여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고 한다.

남조선 각계층은 이번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것은 결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윤석열역적패당의 무능과 반인민적악정에 의한것이 라고 울분을 터뜨리고있다.

지난해 폭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후 남조선의 여야당은 제가끔 《건축법개정안》, 《재난안전관리법개

정안》을 비롯한 수십건의 피해방지관련법안을 내놓았으나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역도는 반지주력에서 사는 23만여세대에 급급하고있고 여야당은 서로 피해발생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개싸움질

지하도로 역시 위험등급이 가장 낮은 곳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윤석열역적패당은 이번 피해의 책임을 이전 (정부)때문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고있고 여야당은 서로 피해발생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개싸움질

만을 일삼고있다.

더우기 윤석열역도는 남조선현지에서 심각한 폭우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인민들이 죽든살든 아닌보살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며 해외를 돌아다녔으며 《대통령실》것들은 《(대통령)이 당장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수 없다》며 역도를 비호투

한편 《국민의 힘》것들은 민심의 환심을 사기 위

본사기자 김정혁

남조선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여 사회적공분을 일으키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6월말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있는 30대녀성이 2018년과 2019년에 아이를 낳자마자 곧바로 죽이고 시체를 수년간이나 방동기에 넣어둔 끔찍한 살해사건(인명 《그림자아기 사건》)이 드러나 내외를 경악케 하였다.

남조선에서 현재 수사중인 아이살해사건은 근 900건이나 되며 1 000여명의 아이들이 행방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사람들을 무력하고 폭행하고 살해하는 사건도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는 한 남성이 20대녀성의 뒤를 쫓아가 집문앞에서 그의 머리를 발로 차서 의식을 잃게 한 다음 강간하는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얼마전에는 경기도에서 한 피해자가 20대녀성을 아바트스강기에서 다짜고짜 폭행

하고 강간하려다가 체포되는 《제2의 부산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다.

그러나 하면 지난해 11월 원주시에서는 20대남성이 40대와 50대 남녀 2명이 자기결혼을 지나가면서 어깨를 다쳤다고 하여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기절시켰으며 올해 4월에 부산에서 50대남성이 여자위생실에 들어가는 60대녀성을 따라가 무력하고 폭행하여 갈비뼈와 코뼈를 꺾어놓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 6월말에는 TV를 통해 범죄물영화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살인중동을 느낀 20대녀성이 알지도 못하는 같은도래 녀성의 집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뒤 태연하게 시체를 트렁크에 넣어 내다버린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 파문을 일으켰다.

남조선에서 몹시러치는 범죄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것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썩어빠진 사회제도의 필연적산물이다.

8월 1일은 일제가 지금으로부터 116년전에 조선봉건국가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한 날이다.

《을사5조약》의 날조로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권을 확립한 일제는 우리 겨레의 반일감정이 높아가는데 불안을 느끼고 조선군대를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조선강점을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가 들고나온것이 바로 《군대정리》였으며 이를 친일매국역적들에게 내려먹인자가 조선침략의 원흉 이보 히로부미(이등박문)였다.

1907년 7월 29일 이등박문은 《국비법 105호》에서 조선군대를 전부 해산시킬데 대한 지령을 하달하였으며 그것이 해산정령에 투실될 위험을 고려하여 일제 비밀을 불일것을 지시하였다.

7월 31일 밤에는 조선군대장교들을 해산내용으로 한 조선황제의 《조칙》을 날조하여 그것을 황제의 명의로 선포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조선주둔 일제침략군의 우두머리였던 하세가와를 내세워

조선군대해산사건자를 8월 1일로 정하고 1차로 서울에 있는 시위보병 5개 대대, 기병대, 포병대, 교성대 8개, 2차로 지방에 있는 진위대 8개 대대를, 3차로 러단사령부, 연성학교, 지중대, 흥동수비대, 군악대 등을 해산시킬것을 계획하였다.

1907년 8월 1일 서울시내는 일제침략자들의 삼엄한 경계밑에 들 어갔으며 하세가와는 8시 서울주둔 조선군대의 부대장 및 구분대장회의를 소집하고 부대해산을 통고하였다.

그리고 일제침략군으로 하여금 무기를 점령케 하고 조선군대장교들로 하여금 도수훈련을 한 다음 병사들을 피여 해산식장인 훈련원으로 무장없이 데려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훈련원에 빈손으로 모인 조선군대는 절반정도였으며 나머지는 이미 원수들의 간계를 간파하고 해산식장에 가지 않았다.

이후 보병 제1대대 1대대장이었던 박성환의 항거자결을 계기로 군인들의 반일감정은 무장폭동으로

이어졌으며 그들은 치열한 시가전에서 일제침략군 100여명을 살상하고 적들의 포위를 뚫고나와 반일의병대에 합류하였다.

이날 일제의 간계에 넘어가 항쟁대열에 참가하지 못하였던 애국적 군인들도 분격을 금치 못해하면서 일제가 주는 더러운 《은사금》을 쥐여부리며 반항하였으나 맨주먹으로 일제야수들의 삼엄한 포위망속에 갇혀온채 해산당하고말았다.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의 기간에 일제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진위대를 전반적으로 강제해산시켰다.

이렇게 강도적방법으로 조선군대를 완전히무장해제시키고 조선의 국토를 병탄한 일제는 40여년간에 걸치는 잔악무도한 식민지통치기간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한다가 아니라 죽어야 한다》고 떠들며 조선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살육하였는가 하면 강제행형, 유괴, 람치의 방법으로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죽음의 전경터와 공사장들에 내몰고 20만명의 조선녀성을

을 침략군의 성노예로 만드는 등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조선의 말과 글,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도 없애버리려고 간악하게 날뛰었으며 조선의 귀중한 문화재들과 자연부원을 다치는대로 파괴락탈하는 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처럼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쳐온 일본은 패망 80년이

가까와오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저들의 치명리는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오려 저들의 침략범죄를 미화분식하면서 군사대국화와 제정책동에 광분하고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일본의 침략적본성은 추호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 군국주의독사는 독이발을 드러내고 허를 날름거리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섬나라를 파멸로 몰아가는 어리석은짓이다.

장형범